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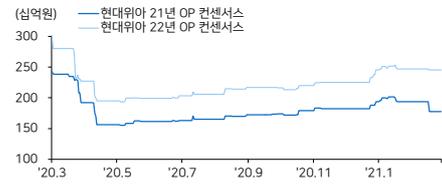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이번엔 자율주행 로봇...클리어패스에 500만회 투자 (한국경제)

현대차는 지난 12월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의 대표주자인 '클리어패스'에 투자한, 클리어패스는 로봇업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무인 배송 서비스를 위한 로봇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사업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함. <http://bit.ly/2QnF3Tv>

현대차·기아, 우아한형제들과 배송 로봇 개발 나선다 (BizFACT)

현대차·기아는 '우아한형제들'과 '배송 로봇 모빌리티 및 물류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함. 이번 협약을 통해 무인 배송 서비스를 위한 로봇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사업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함. <http://bit.ly/3f6ekFI>

현대차, 선행기술원 설립...미래차 원천기술 확보 (SBS Biz)

현대차에서 친환경에너지와 첨단 소재 등의 원천 기술을 개발 시 신속하게 상용화를 담당하는 조직인 선행기술원을 설립함. 기초 기술과 양산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동시에 하려는 의지로 해석됨. <http://bit.ly/393p8Q5>

전기차 파권 경쟁 후끈...선두 경쟁전, 본격 불 붙었다 (e대한경제)

전기차 시장 선두인 테슬라를 현대차, 폭스바겐 등이 바짝 추격하는 중, 글로벌 완성차 업체마다 전기차 출시·투자와 관련된 중장기 전략 및 비전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올해가 전기차 원년으로 예상됨. <http://bit.ly/2PpFHD>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 현대차·기아, 작년 2% 신규 전략투자 (조선비즈)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도 신규 전략투자를 다섯 배 늘린 것으로 나타남. 자율주행·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전문 업체로의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됨. <http://bit.ly/3vPXhNF>

올해 현대·기아차 판매량 절반이 RV (조선일보)

올해 들어 현대차·기아가 판 승용차 2대 중 1대가 SUV·미니밴 등 '레저용 차량'(RV)인 것으로 나타남. 올해 RV 차종이 사상 처음으로 세단 등 다른 차종을 제치고 판매 비율 50%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제기됨. <http://bit.ly/3cUfjh>

'10兆'대 한은시스템 매각 시작 (한국경제TV)

PEF 운용사 한엔컴퍼니는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하며 한은시스템 매각 작업을 시작함. M&A 업계에선 한엔컴퍼니와 한국타이어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한 지분 70% 가치가 최소 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함. <https://bit.ly/3r2bNho>

르네사스 공장 화재...반도체 없는 완성차업체 '실상가상' (디지털데일리)

차량용반도체 3위 기업 르네사스는 지난달 지진 여파로 주요 공장이 가장 중대한 데 이어, 이바라키현 나카 공장이 화재로 가동 중단됨. 이에 차량용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함. <http://bit.ly/3raXcW>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